

〈원천강본풀이〉의 시공간적 의미와 사유체계

허남춘*

1. 서
2. 원천강
 - 1) 원천강으로 가는 길
 - 2) 걱정과 성취
 - 3) 원천에서 돌아오는 길
3. 사계절
 - 1) 시간관
 - 2) 대등한 관계
4. 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오늘이의 여정 속에 담긴 의미를 찾는 작업이다. 제주도의 무속 신화에 담긴 구비철학을 찾아 우리 삶을 조명하고자 함이다.

원천강을 찾아가는 오늘이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는 직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다. 인생의 목표는 여러 단계를 거쳐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hnc423@jejunu.ac.kr

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원천강에서 돌아오는 여정은 그 동안 신세를 진 존재들에게 보답하는 과정이다. ‘베풀고 보답하기’의 정신은 축의 시대에서 배태하여 인간의 위대한 덕목이 된 ‘자비와 공감’과 맞닿아 있다. 아울러 전반부가 ‘부모에게 의존하기’의 과정이었다면 후반부는 ‘부모에서 벗어나기’의 과정이다. 홀로 독립하여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결핍을 지닌 존재들은 모두 문제를 해결한다. 물질적 욕망이나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 있다.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인간은 결혼해서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쉬운 문제를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지만, 서로 일깨워주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우리 운명은 정해진 것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동식물이 소통하여 서로 돕는 관계를 보여 주고, 인간계와 초월계가 소통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인간과 자연 만물이 대등하고 안과 밖의 세상이 대등한 화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여 한계에 다다른 인류를 구원할 해답을 신화에서 찾는다.

주제어 ● 원천강, 오늘이, 신화, 운명, 베풀고 보답하기, 자비와 공감, 홀로서기, 사계절, 시간관, 스피크스, 욕망의 제어, 대등한 화합

1. 서

오늘이 이야기는 특별하다. 인간과 동식물과 선녀를 만나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모든 존재의 운명을 바꾸어

준다. 오늘이의 부모가 있는 원천강은 사계절이 함께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었다. 시간이 멈춘 곳이던가. 이런 특이한 이야기는 1930년대 일본인에 의해 제주도에서 채록되었다. 무속의 신화인데 무당이 부른 노래여서 서사무가라 한다. 그런데 이 <원천강본풀이>가 지금은 제주도 어디에서도 불리지 않는다. 미미하게 전승되다가 사라진 것이다. 일반신 열두 본풀이에서 탈락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타진해 본다.

진성기 선생은 이 <원천강본풀이>를 특수본풀이라 분류한 바 있다. 특수본풀이 속에 12편을 수록해 놓았지만 같은 속성의 본풀이는 <원천강본풀이>를 비롯하여 <세민항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 <삼두구미본풀이> 4편이 있는데, 죽음의 세계 혹은 이계 여행과 연관된 것들이다. 이 본풀이들은 민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천강본풀이>도 제주에만 남은 독특한 신화이지만 우리나라 전역의 민담, 특히 <구복여행> 민담과 유사성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오늘이의 이야기는 <구복여행>의 석송이야기와 유사하되, 제주 무속적 요소를 지닌다고 해석하였다. <원천강본풀이>가 민담을 수용하였을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층위의 존재가 지닌 상징성이라 하겠다.¹⁾ 최근에 나온 박사논문은 <구복여행> 민담과 비교를 세심하게 하면서도, 특수본풀이의 용어를 바로잡아 ‘특수신본풀이’라 명명하면서 <원천강본풀이>가 지닌 독자적 영역의 특성을 ‘이곳과 저곳의 경계 넘어서기’로 구체화한 바 있다.²⁾

<원천강본풀이>에서 주인공 오늘이가 들판에서 솟아났는데 부모가 있다는 것은 2중출생담이라 하면서, 본디 자연에서의 출생담이 있었는데 구

1) 민담 수용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속성이며, 신화적 상징으로 가득한 원형적 화소를 탐구하고, 인간 동식물 옥황시녀 등 여러 층위의 존재를 포괄적으로 표상하는 바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69~70쪽.) 강권용은 특수본풀이에 대해 일찍 석사논문을 쓴 바 있는데, 거기서 민담 속성 이외에 군문열림과 ‘연유담음’ 요소 등 제주 무속적 요소가 가미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1)

2) 고은영, 『제주도 특수신본풀이의 성격과 의미』, 제주대 박사논문, 2019, 58~64쪽.

복여행담이 덧붙은 것이라 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땅 중심 사고방식에 후에 하늘 중심 사고가 개입되었다고 한다.³⁾ 오늘이든 주변 사람들의 묻는 말에 “나는 강님드름에서 소사났습니다.”⁴⁾라고 말한다. 제주 영웅신화의 보편적 탄생과정은 바로 땅에서 솟아나기이다.

을축 삼월 열사흘날 모흥굴로 즈시에 고이왕이 솟아나고 축시에 양이생이 솟아났수다 인시에 부이민이 솟아났수다. (신연봉본)

반고씨가 해음엇이 솟아진다 ... 천왕씨가 열두양반 솟아지고 ... 단군님이 단군날로 솟아지연 ... 고량부(高良夫) 삼성왕(三姓王)이 무운굴(毛興穴)로 솟아지연 (강태욱본)

동방으로 청의동즈 반고씨가 솟아나니 ... 대뻔왕 솟아나고 소뻔왕이 솟아나고 ... (고창학본)⁵⁾

제주도 <탐라국 건국신화>에서 3신인이 땅에서 솟아난 사정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헌신화의 근원이라 할 구비신화 속에는 많은 신이 땅에서 솟아난다. 고양부 3성이 땅에서 솟아난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시조인 단군도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고, 중국 창세신화의 주인공인 반고씨도 땅에서 솟아났다고 할 정도로 관용적 표현이 되었다. 대뻔왕과 소뻔왕은 천지왕과 총명부인 사이에서 난 쌍둥이인데도 ‘솟아났다’고 구연된다. 제주의 중요한 신들은 땅에서 솟아난다. 그러니 인간과 동식물과 선녀를 만나 길을 찾는 여정

3) 권복순,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배달말』 제56집, 배달말연구회, 2015, 179~187쪽.

4) 아키바·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상』, 대판옥호서점, 1938. 이하 <원턴강본풀리>의 원문은 이 자료에서 인용한다.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는다.

5)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371쪽, 656~665쪽.

이 모두 민담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제주적 독자성도 있고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것도 인정된다. 식물이 땅에서 솟아나듯 인간의 탄생이 땅에 기원을 둔다는 원시적 사고는 인류 보편적인 것이었다가 제주도에만 많이 남아 있다.

제주신화가 땅에서 솟아난 화소가 중심을 이룬다고 해도, 땅에서 솟아난 신의 배우자는 대개 바다 저 멀리에서 도래(渡來)하는 신격들이다. 제주 당신본풀이의 대표격인 <송당본풀이>에서 소천국은 땅에서 솟아나지만 백주또는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난 후 바다를 건너온다. 제주 건국신화에서도 3여신이 벽랑국에서 제주로 배를 타고 온다. 오늘이의 여정은 긴 수평적 이동이고, 이무기의 도움으로 청수바당을 건너기도 한다. 이런 수평적 이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신화에서 천지왕과 명진국 따님아기 등 술한 신들이 천상에서 하강한다. 오늘이가 선녀를 돕고 선녀가 보답으로 원천강을 안내하는데, ‘지상에서 천상으로 수직적 이동을 위한 계기’⁶⁾를 마련했다고 보았듯이 오늘이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선계 혹은 천상계로 가는 중간 정도의 이계로 이동한다. <원천강본풀이>에는 땅에서 솟아나는 이동 이외에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두루 나타난다. 제주적 신화소와 남방적 북방적 신화소가 복합되어 <원천강본풀이>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이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원천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운명의 변곡점인 ‘원천강’의 의미일 것이다. 원천강을 찾아가는 오늘이를 돕는 존재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청한다. 장상이는 옥황님의 분부 대로 언제든 글을 읽어야 하는 운명인데, 왜 밤낮으로 글만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 달라고 한다. 연꽃은 봄이 되면 상가지에만 꽃이 피는데 이런 자신의 ‘팔자’를 알아봐 달라고 한다. 이무기(천하대사)는 용이 되어 승천하는 ‘방법’(어찌면 좋겠는가)을 물어봐 달라고 청한다. 매일 이는 글만 읽고 있는 자신의 ‘팔자’를 물어봐 달라고 한다. 그 청의 내용이

6) 유정월,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4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52쪽.

‘팔자’와 ‘이유’와 ‘방법’이다. 대부분 운명에 대해 알고자 한다. 그래서 원천강을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들의 공간’⁷⁾으로 정리하였다. 그간의 많은 학자들이 이 ‘원천강’의 정체를 밝히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장주근, 이수자, 강권용 등 초기 원천강 연구자들이 논한 바를 김혜정이 정리하였고, 부모국으로서의 공간, 점서(占書)인 책, 사람이름 점쟁이(무당)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았다.⁸⁾ 점서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는데, 원천강은 ‘하늘이 정한 운명을 알 수 있는 곳’ 혹은 ‘이미 결정된 운명이 있는 곳’⁹⁾이라고 단정하는 데까지 이른다. 운명은 정해져 있더라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운명의 코드’를 알게 된 사정이 소중하다. 이 운명의 코드에 집중하자.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까지도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는 전제를 너무 신봉한 것은 아닐까. 여기 이야기 속에서도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 운명의 반은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반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제주신화의 사유를 읽어야 한다. <삼공본풀이>에서 인간은 좋은 전상과 나쁜 전상(혹은 상소록과 하소록)이 있는데, 머리가 좋은 것은 상소록이고 술을 잘 먹는 것은 하소록이라 하면서, 상소록을 잘 살리고 하소록은 털어내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운명은 정해진 바도 있지만 바꿀 수 있다는 능동적 힘을 이 <원천강본풀이>가 일깨워준다고 본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오늘이를 중심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바꾸는 능동적인 힘을 찾아 나선다. 그래서 원천강으로 가는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거시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원천강이라는 장소성과 사계절이 모두 있는 시간성이 무엇을 환기하는지 신화 원형을 토대로 살필

7) 조현설, 『신화의 언어』, 한겨레출판, 2020, 105쪽.

8)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257~262쪽. 여기서 원천강이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여 있다는 것을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이고, 운명을 주재하는 능력과 연관된다고 했다.

9) 유정월, 앞의 글, 258~259쪽.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과 우주를 대등하게 바라보는 신화적 세계관을 중시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필자의 경험담을 섞어 쓰면서 우리 시대의 파탄 난 삶을 돌아보는 자세로 글에 임한다. 그리고 신화가 탈근대 패러다임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여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길 기대한다.

2. 원천강

1) 원천강 가는 길

어느 날 강남들에서 옥같은 여자아이가 솟아났다. 학이 날아와 한 날개로 깔고 다른 날개로 덮고 그 여자아이를 키웠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에 대해 이름과 나이를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오날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오날이가 백씨 부인을 만나 부모가 원천강에 있음을 알고 부모를 찾아 길을 떠났다. 오날이는 도중에 장상이를 만나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자, 장상은 서천강 가의 성 안에서 글만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연꽃을 찾아가 보라고 일러 준다. 오날이가 연꽃을 만나 길을 묻자, 연꽃은 제일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무기(천하대사)를 찾아가 보라고 일러 준다. 또 이무기를 만나 길을 묻자, 이무기는 야광주를 세 개나 갖고 있는데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청수바당을 헤엄쳐 오늘이를 건네주고 매일이에게 가 보도록 원한다. 매일이를 만나 길을 묻자, 매일이는 자신이 항상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선녀에게 가 볼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옥황의 세 시녀를 만나 길을 묻자, 바가지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퍼낼 수가 없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오날이는 정당풀과 송진으로 바가지의 구멍을

막고 물을 대신 퍼 주었다. 시녀들은 크게 기뻐하며 오날이에게 백배사례하고는 원천강까지 동행하며 길을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오날이는 원천강에 도착하지만, 문지기가 오날이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오날이가 서럽게 울자 냉정하던 문지기가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오날이의 부모에게 가서 고하였다. 오날이를 만난 부모는 옥황상제로부터 원천강을 지키라는 명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된 연유와 멀리서 지켜 본 사정을 말한다. 오늘이는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두 존재하는 원천강의 성 안을 둘러 본 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오는 도중에 부탁받은 것들을 부모에게 물었다. 부모는 장상과 매일이는 부부가 된다면 만년 영화를 누릴 것이고, 연꽃은 윗가지의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만발할 것이며, 이무기는 야광주 두 개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그 야광주와 연꽃을 받으면 신녀가 되리라고 알려 주었다. 되돌아오는 도중에 부탁받은 일을 모두 마친 오날이는 백씨 부인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보답으로 야광주 하나를 선사한 후에 옥황의 신녀가 되어 승천하였다. 승천한 오날이는 옥황의 명을 받들어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원천강’이라는 책을 등사하게 되었다.¹⁰⁾

오늘이는 혼자였는데 백씨부인을 만나 원천강의 부모 사연을 듣고 부모를 찾아 떠난다. 별충당의 푸른 옷을 입은 장상도령을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매일 책만 읽는 사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난국을 헤쳐가야 하는지 알아주기로 하고 떠난다. 연화못 연꽃을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한 가지에만 꽃이 피는 사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지가지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알아주기로 하고 떠난다. 청수바다 천하대사(大蛇)를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여의주가 셋이나 있는데 용이 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지 알아주기로 하고 떠난다. 글 읽는 여자

10)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원천강본풀이.(박봉춘 본) 번다한 말을 빼고 긴요한 말을 덧붙혔다.

아이 매일이를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매일 책만 읽는 사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명에서 벗어나는지 알아주기로 하고 떠난다. 옥황 시녀를 만나 물 푸는 일을 돕고 드디어 시녀의 도움으로 원천강에 다다른다. 반복적인 행로가 이어지는데 사연은 제각각이다.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정이 특별하다. 누구든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다음 목적지만 알고 있다. 단박에 목적지를 알고 떠나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쉽지 않음을 일깨워 준다. 다음 목적지를 알려 줄 수는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그들도 모른다.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일러 준다.

인생에서 목표를 한 번에 찾아 도달하는 경우는 없다. 단번에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직행 이동방법이 인생에는 없다. 단계 단계를 밟아야 하고, 과정을 차분히 거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인생 담론을 담고 있다. 심방의 목소리는 신앙민에게 향하고 그 메시지는 가족들에게 상기되었을 것이고,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환기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제주도 전체 민중의 생활철학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단계별 성장과정을 다음처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초등학교에서는 몸에 대해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정신에 대해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교양을 배우고, 대학교에서는 전문지식에 대해 배우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세상의 진리에 다다르게 된다. 지속적으로 마음 수양을 해야 세상의 진리에 가까워진다. 좋은 대학에 갔다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또 탐구해야 한다. 좋은 직장에 갔다고 그것이 종착지는 아니다. 거기서 또 자신의 삶을 모색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작은 조각이 단박에 최종 결론을 줄 수 없다. 작은 지식이 모이고 쌓여 점점 진리의 세계에 접근하게 됨을 상징한다. 그런 지식의 조각을 모아 엮어야 최종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각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묻고 답을 구해야 한다. 묻고 답하는 것이 학문(學問)이다.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두루 물어야 길이 있음을 알게 된다. 아랫사람

에게도 물어야 하고, 동식물에게도 물어야 한다. 그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만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 신화는 말하고 있다. 인생의 묘리가 오늘이의 여정 속에 있다.

여럿의 도움으로 길을 가지만 그 도움을 주는 등장인물들도 모두 결핍을 지닌 존재다. 오늘이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연꽃은 적화(摘花, 꽃 속아내기)를 몰라 결핍을 지닌 존재이고, 이무기는 욕심이 지나쳐 오히려 결핍을 지닌 존재고, 선녀는 구멍 뚫린 바가지 하나 고치지 못하는 존재다.¹¹⁾ 매일리와 장상이는 별층당에 눌러앉아 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궁리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을 가두어버린 사람들 내면의 감옥’¹²⁾을 의미한다. 인생의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마냥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의 답도 되지 않는 공부에 매달린 듯도 하다.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으로 환원한다면 암기식 교육에만 매달리고 본의를 아랑곳하지 않는 입시생 공부나, 공무원 시험에 매몰되어 인생의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세대의 무모한 공부에 비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들의 고민을 쉬운 문제이고 쉬운 해답이라고 단정하여, ‘왜 그리 쉬운 것도 모를까’ 반문해서는 안 된다. 하늘나라 옥황의 시녀들은 뚫어진 바가지로 하염없이 물을 푸고 있다. 오늘이의 눈에도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다. 천상계는 모두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곳에도 분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랑과 반목이 있다. 천상계 출신이라고 모든 것을 잘 알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계의 존재들은 천상계의 방식을 모른다. 살아온 세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면 모를 수도 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동물계의 대표인 이무기가 여의주 세 개를 가지고도 승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식물계의 대표인 연꽃이 가지마다 꽃을 피울 수 없는 사연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별층당의 매일리와 장상이가 하염없이 공부만 해야 하는

11) 조현설, 앞의 책, 106쪽.

12)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제 23집, 남도민속학회, 2011, 421쪽.

상황을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한다. 무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부모의 과다한 욕심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도 살아온 세상이 다르고 사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이쪽이 저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다. 유럽이 아랍계를 잘 알 수 없다. 유럽이 아시아를 아는 척하지만 오해 투성이다. 왕이 백성의 사정을 잘 알 수 없다. 남남이 서로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부부의 처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정도 그러하다. 그러니 쉬운 문제를 모른다고 타박해서 안 되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옳다. 그 다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일러 주면 된다. 우리 인생의 묘리가 오늘이의 여정 속에서 빛난다. 제주 신화에는 간절하면서도 필수적인 인생철학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

2) 걱정과 성취

어렵게 원천강에 다다른 오늘이는 문지기의 벽을 만난다.

문지의 거절은 넘우나 냉정하얏고
가련헌 오늘날이에게는 최후의 절망인 것갓치 하야
하날이 문허지는 것 갓뵈다.
(울음, 눈물) 여기서 죽자(흐느낌)
그 비명허는 소래는 부모에게까지 흘러갓든 것이다.

문지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이의 걱정은 길게 부연되는데 줄이고 일부 상황은 괄호 안에 넣었다. 오랜 과정을 견디며 차분히 단계를 밟아 원천강까지 오긴 했지만, 문지기가 막아섰다. 상황은 냉정함과 절망이 쌓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오늘이는 울음과 눈물과 흐느낌으로 죽음을 다짐하는 지경에 이르자 문제가 해결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보여주어야

경계를 나누는 문이 열린다는 것¹³⁾을 의미하고, ‘울음의 공감력’¹⁴⁾이 있어 천지신명을 움직이게 되었다.

<원천강본풀이>는 서사무가다. 이야기를 지닌 무당의 노래여서 단순히 이야기를 구성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노래에 걸맞는 감성을 발휘한다.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하는 오늘이와 매일이와 장상이가 한데 어울리는 노래가 덕담창에 있다. “오늘 오늘 오늘이여 날도 조아 오늘이여. 들(月)도 조아 이 오늘이로구나. 이 오늘로 놀자하니 성도 언만 조을선가. 송도리도 내 츠지라. 오늘 가져 날 가져 성도 언만 가실서냐.”¹⁵⁾로 이어지는데, 오늘이 날이 좋은데 오늘처럼 잘 놀면 마음인들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오늘’은 주인공 오늘이와 금일(今日)이 2중적으로 쓰였다. 이 노래는 석살림 중 ‘놀판’에서 신앙민이 인정을 걸고(돈을 내고) 춤을 추는 과정과 연관되는데, 인정을 거는 행위는 자비와 적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원천강본풀이>의 주제와도 상통한다.¹⁶⁾ 석살림의 신명과 노래와 원천강본풀이의 주제의식이 연관되어 있다. 자비와 적선의 주제인 <세민황제본풀이>는 오늘이와 매일 장상이 서두에 나온다.

오늘 오늘 오늘이라 들도 좋아 오늘이여.

오늘 오늘 오늘이라 날도 좋아 오늘이여.

매일 장삼 오늘이면 성도 언말 가실서냐.

오늘 날은 날이 좋아 들 중에도 상들이여 날 중에도 상날이여¹⁷⁾

13) 고은영, 앞의 글, 28쪽.

14) 신동훈, 「서사무가 속의 울음에 깃든 공감과 치유의 미학」, 『한국무속학』 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41쪽.

15)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80쪽. 이 노래의 다른 유형을 소개한다. “이제 오닐은 오닐이라 / 날도 좋구나 오늘이라 / 들도 좋다 오늘이라 / 네일 장삼은 오늘이면 / 북름 산도 놀고 가자”(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시왕맞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194쪽.) 오늘과 내일과 장삼이 등장한다. ‘매일’ 대신에 ‘내일’이 구연되기도 한다.

16) 고은영, 앞의 글, 96~97쪽.

“오늘 오늘 오늘이라” 노래가 불린 바로 뒤에 “매일이는 하늘 사람 장삼이는 지하 사람 매일이는 남자이고 장삼이는 여자우다”라는 주인공 이름이 나열된다.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장삼이가 남자이고 매일이가 여자인데, 여기서는 매일이가 남자이고 장삼이가 여자이다. 그러니 주인공 이름으로서의 ‘매일(毎日)’ ‘장삼(長常)’이 순간순간의 시간과 오랜 시간의 시간 관념과 중첩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세민황제본풀이>는 세민황제가 죽어 저승에 갔는데 곳간이 비어 저승의 매일이와 장삼이의 곳간 곡식을 꾸어 쓰고, 다시 이승에 잠시 돌아와 그 빚을 갚고자 하였지만 매일이와 장삼이가 재물 축적보다 베푸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자비와 적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이승과 저승을 오간다는 측면이 ‘현실계와 원천강이라는 이계’를 오가는 <원천강본풀이>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오늘 오늘 오늘이여”라는 노래가 불리는 놀판은 석살림의 제차에서 ‘신메움 - 놀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석살림 제차 연행은 다음과 같다. 초감제의 신청궤에서 균옹일월을 청하여 놀릴 때 ‘신청궤 - 젓다리 얹혀 살려움’ 제차에서 조상신이나 균옹일월신을 놀리는 경우에 연행할 수 있다. 둘째, 초감제와 맞이굿 사이에서 독립제차로 연행되는데 독립제차로 ‘신메움 - 놀판’을 여러 번 연행할 수 있다. 셋째, 맞이굿의 마지막 제차로 연행되는데 불도 맞이, 일월맞이, 초공맞이, 이공맞이 등 ‘메어들어 석살림’ 제차에서 연행할 수 있다. 놀판에서는 덕담, 서우제소리, 담불소리 등이 연행된다.¹⁸⁾ 그러니 신긋의 천신일월맞이 과정에서 매일·장삼의 노래가 불려지니 <원천강본풀이>는 심방의 신긋에서 불려졌을 가능성을 타진¹⁹⁾한 것은 협소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근거로 <원천강본풀이>가 신긋의 비밀스런 의례에서 불린 노래²⁰⁾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노래는 석살림 ‘놀판’의 신

17) 진성기, 앞의 책, 611쪽.

18) 송정희, 「제주도 굿 재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2015, 25~40쪽.

19)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민속학연구』 제12집, 국립민속박물관, 2003, 18쪽.

20) 조현설, 앞의 책, 107쪽.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이야기, 혹은 오늘이라는 심방의 저

명난 자리에서 주로 불렸다.

“오노리 오노리나 락일에 오노리나 / 점쁘디도 새디도 오노리 / 새리나 락일 당상의 오노리 오쇼서”(〈금합자보〉)라는 노래가 가곡창 시조로 등장하는데, 진본 <청구영언>에는 1번 노래로 등장하고, <양금신보>에 ‘심방곡(心方曲)’으로 알려져 있다. 심방은 제주의 무당을 이르는 말로써, 심방곡은 무가와와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7세기 초반, 가곡창 중대엽의 ‘오노리’ 시조에 심방곡이라는 명칭이 부기된 것은 이 노래가 무가계 노래에서 전승된 사정을 반영한다.²¹⁾ 이것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곳의 흥겨운 제차에서 불린 때문일 것이다. ‘오늘·매일·장상’ 노래와 셋의 연관성이 제주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알려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도 곳의 제차에 대해 길게 부연한 것은 덕담창과 본풀이와의 연관성 때문이었다. 오늘이와 매일 장상의 관계가 흥겹게 결말지어지는 장면과 흥겨운 덕담창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성취에 앞서 고난의 절정이 전개되고 있으니, 오늘이가 원천강에 도착하여 겪는 비애감은 아주 슬픈 노래로 이어진다. 고난의 걱정적 외침 뒤에 성취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원천강에 도착하여 겪는 오늘이의 슬픔을 주목한다.

제주도의 무속 제차에는 ‘영계올림’이 있다. 죽은 영혼의 이야기를 심방이 대신 서럽게 울면서 말하기 때문에 영계올림이라 한다. ‘영계’는 영혼의 뜻이고 ‘올림’은 울음의 뜻이다.²²⁾ 오늘이가 심방처럼 이계를 만나 서럽게 울면서 말하는 대목이 마치 영계올림의 비애처럼 느껴진다. 본풀이 속에는 이처럼 곳의 제차 ‘영계올림’과 같은 걱정적인 감성이 표출되고, 영혼의 울

승 탐방과 연관시켜 상상하면 ‘시왕맛이’ 제차에서 <원천강본풀이>가 불릴 수는 있겠으나, 그 흔적을 큰곳 제차에서 찾을 수 없다. 특수신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는 <차사본풀이>와의 연관성을 통해 시왕맛이 제차에서 불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 강경호, 「‘오노리’ 노래의 무가적 전통과 「심방곡」과의 관련 양상」, 『영주어문』 제17집, 2009, 29~33쪽.

22) 현용준, 앞의 책, 767쪽.

음을 통해 해원(解冤)이 이루어지듯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죽은자의 목소리를 빌려 산자에게 말을 건네기 때문에 산자는 죽은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반대로 죽은자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산자가 죽은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굿의 효용성은 이처럼 산자의 심리를 위무하는 데 있다. 여기 <원천강본풀이>에서도 긴 울음 뒤에 부모에게 진심이 전달되고 화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니,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제주도 무가의 본질은 ‘이야기하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성으로 노래하기’가 결합되어 극적 분위기를 배가함을 알 수 있다.

3) 원천강에서 돌아오는 길

원천강에서 부모를 만나고 잠시 머무른 후 오늘이든 본디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문지기에게 가로막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도 “팔자 부탁 어서 할이 / 모든 은혜 엇디 할이”라고 걱정한 것을 보면 부모를 만난 후,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 부탁한 바의 운명에 대한 해답을 위해 다시 인간계로 돌아가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잠깐의 원천강 체류 후 부모에게 팔자를 바꾸고 은혜를 갚을 해답을 얻는다.

앞의 요약에도 제시한 바처럼, 오늘이의 부모는 장상과 매일이가 부부가 된다면 만년 영화를 누릴 것이고, 연꽃은 윗가지의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만발할 것이며, 큰 뱀은 야광주 두 개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음양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무기의 여의주 세 개는 탐욕을 경계하게 한다. 하나씩 얻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두세 개를 얻은 과거가 있다. 이것은 일확천금의 욕심을 질타하는 것이고, 그 교훈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연꽃이 상가지만 꽃을 피우고 나머지 가지에는 꽃을 피우지 못한 것에도 의혹이 있다. 너무 하나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가지를 등한시했던

것 같다. 연꽃 스스로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큰아들만 위하다가 나머지 자식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쪽의 개화에만 신경을 쓰다가 아래쪽의 문제에는 소홀한 것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상부 지향 이데올로기를 가진 결함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결함을 돌아보게 만든다.

욕심을 버려야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해답은 잘 알지만 정작 실천은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다. 술잔을 채우게 되면 잔은 그 양만큼만 받고 가진 것을 털어내는데, 우리 인간은 무한정 욕망을 채우다가 결국 과도함 때문에 망하고 만다. 필요 이상 갖고도 그 나머지를 남에게 베풀거나 비울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세상을 경계하고 있다. 상가지의 것을 남에게 주었더니 가지가지 꽃피었다고 한다.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다고 여기는 것을 남에게 주면 그 이상의 엄청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내 전 재산을 내어주는 결단을 내렸을 때 상대를 감동시키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신뢰를 모두 쏟아누군가를 밀었을 때 그 보답은 상상 이상인 경우가 있다. 혹은 상가지에 치우친 사랑과 편견을 없애자 연꽃의 몸과 마음이 치유된 것일 수도 있다. 비워야 채워지고, 한쪽을 버려야 다른 쪽이 채워진다는 인생철학을 알려 주고 있다.

오늘이는 도움을 받았던 상대에게 다시 은혜를 돌려준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안하는 ‘도움과 나눔의 서사’²³⁾가 이루어지고, 이타적 전환²⁴⁾과 상생 원리가 전개된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베풀고 보답하는’ 원리라 정의한다.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1차 형이상학의 혁명이 신화의 탄생이라면 2차 형이상학의 혁명은 종교의 출현이라 한다. 신화가 지닌 관념을 종교가 상당 부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은 바로 자비와 이타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축의 시대>의 가장 큰 미덕이

23) 고은임, 「원천강본풀이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제35집, 서울대 국문학과, 2010, 213쪽.

24) 박명숙, 「한중 구비여행 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구비문화회, 2006, 371~407쪽.

라 할 자비와 공감의 철학²⁵⁾을 신화가 간직하고 있다면, 무속도 축의 시대 종교와 철학을 만나면서 진화한 흔적일 것이다.

원시 고대 신화는 잔인하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중세 종교가 보여준 잔혹의 역사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다. 근대의 명료한 과학정신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은 고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인간의 심장을 내서 제물로 바치던 잔인함을 들추며 그들의 신앙과 신화를 비난하는데, 정말 맞는 말일까. 그들은 경쟁에서 이긴 명예로운 대표가 자기들의 생존을 도와준 자연의 신, 특히 태양의 신에게 가장 귀한 영광을 바치고자 스스로 자청하여 죽고 그 심장을 바친 것이다.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읽으면 그 죽음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다. 무모한 전쟁으로 수천 만 명을 죽이고, 구제역으로 수 억 마리의 소와 돼지를 죽이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현대인의 삶이 과연 온전한 것이던가.

베풀고 보답하는 은혜의 연결고리가 사람끼리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동물계와 식물계에까지 미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폭넓은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그 호혜성과 이타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의 지혜가 가장 밝았던 축의 시대에 마련된 ‘자비와 공감’의 정신이 신화에도 영향을 주고, 현대 인간들에게도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인간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예전 제주 사람들은 굿에서 불리는 신화 본풀이를 통해 위대한 인간 정신을 터득해 왔다. 그러나 그 전통은 서서히 소멸해 간다. <원천강본풀이>는 20세기 초반까지 남아 채록되었지만, 지금 굿에서는 잊혀졌다. 그러나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로 살아 남아 애니메이션(이성강, 2003)이 되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행운을 얻었다. 오늘이가 다양한 존재들과 호혜성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²⁶⁾임을 강조하여 콘텐츠적 활용도가 높아졌다.

25) 카렌 암스트롱, 『축의 시대』, 교양인, 2010, 670~673쪽.

26) 정제호, 「<원천강본풀이>의 문화콘텐츠화 요인 분석」, 『동양고전연구』 77집, 동양고전연구회, 2019, 137~138쪽.

오늘이가 부모를 만나고 다시 길을 떠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철학을 만나게 된다. 혼자였던 오늘이는 부모님의 존재를 알고 부모를 만나러 간다. 그런데 부모를 만나 거기 머물지 않고 다시 인간세상으로 돌아온다. 홀로 살아온 주인공 오늘이의 형상이 “거친 세상에 훌쩍 던져져 한 몸으로 존재를 감당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²⁷⁾이라고 했다. 그리고 부모를 잠시 만나 수만 리 길을 다시 돌아온 것은 ‘나’라는 존재가 홀로가 아님을 확인하는 여행이었고, 불행한 여러 존재도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²⁸⁾고 했다. 그렇게 오늘이는 주변 존재들과 ‘베풀고 보답하는’ 관계성을 회복하고 세상과 화합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혼자였던 오늘이가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은 ‘부모에게 의존하기’의 시간이다. 다시 부모를 떠나 혼자의 길을 가는 것은 ‘부모에서 벗어나기’의 과정이다. 나이 어린 오늘이는 부모의 존재를 알고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다. 당연한 행로다. 몇 단계의 행로를 거치면서 오늘이는 성숙하여 간다. 하지만 부모가 있는 원천강으로 가는 역정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자기정체성의 확인²⁹⁾ 절차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동식물과 선녀를 만나고 인생학습이 쌓여가면서 부모를 만나는 시점에서는 훌쩍 성장한 오늘이를 만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부모의 품에서 응석을 부리고 누구의 도움만 받는 처지가 아니다. 이제 그를 구원했던 존재들을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 20세가 넘으면 부모의 곁을 떠나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가라던 선배들의 조언이 이 신화 속에 녹아 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부모를 찾을지언정 20세 어간의 청년이 되면 길을 떠나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생생하다. 요즘 21세기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사물인터넷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부모의 곁을 지키며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안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토리

27)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69쪽.

28) 신동훈, 위의 책, 72쪽.

29) 고은임, 앞의 글, 206쪽.

(得道)세대를 탄생시켰다. 개척정신도 창조정신도 없는 어두운 삶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때, <원천강본풀이>는 ‘부모에서 벗어나기’를 이야기하면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라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신화의 화두에 귀 기울여야 한다.

3. 사계절

1) 시간관

오늘이, 그가 다다른 원천강은 어떤 곳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함께 있는 신비한 곳이다.

만리장성 둘러싸흔 곳에
곳곳마다 문을 열어 보았다.
보니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다 있는 것이었다.
구경을 쫓치고 오날이가
또다시 온 길을 돌아갈여 할 쟈

텍스트에는 사계절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곳곳마다 문을 열어보았다고만 했다. 그런데 원문이 너무 간결한 탓에 “첫째 문을 여니 따듯한 바람이 불고 온갖 꽃이 피어 있었다. 둘째 문을 여니 햇볕이 따갑고 풀과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셋째 문을 여니 들판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온갖 열매들이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넷째 문을 여니 하얀 눈이 날리고 찬 바람이 불고 있었다.”³⁰⁾라고 멋지게 수식하여 부회한 바 있다. 사계절이 하

30) 아침나무, 『세계의 신화』, 삼양미디어, 2009.

나인 세상이다. 우리가 나뉘어 있다고 여기는 시간이 여기서는 하나다. 계절은 순환되지만 원래 하나라는 것이다. 조금 덥다고 조금 춥다고 느낄 뿐이지 실은 시간은 하나의 방향으로 흐를 뿐이다. 우주는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임을 알려 준다.

이집트 스팅크스의 이야기가 환기시켜 주는 세상도 하나다. 스팅크스는 네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 뱀의 꼬리 - 이는 하늘의 네 귀퉁이를 지키는 별자리를 상징하였다고 한다. 아 울러 봄에는 사람, 여름에는 사자, 가을에는 독수리, 겨울에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는 하나의 우주를 표현한 다른 모습일 뿐이다.³¹⁾ 동서남북과 봄여름가을겨울 시공간이 하나임을 일깨워준다. 그런 세상이 과연 있을까. 우리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명료한 세상, 논리정연한 세상에는 없다.

사계절이 하나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렇다고 그곳을 천상계나 이계(異界)라고 밀쳐둘 필요는 없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 현실 삶 속에는 끈과 줄이 많이 보인다. 빨래줄도 보이고 개줄도 보이고, 노끈과 포장끈도 다양하다. 그런데 우정의 연줄이나 사랑의 끈은 보이지 않는다. 인연의 끈과 같은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소중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 감아야 보인다. 눈 감고 보이는 세상만이 참 세상이다. 오늘이든 그런 세상을 만나고 왔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풀고 난 후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에 나온다. 인간의 문제를 풀 오이디푸스는 오만했고 결국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다. 스팅크스가 지닌 신비한 문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 스팅크스는 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주의 에너지여서 늘 겸허하게 대하여야 함을 일깨운다.³²⁾ 우리는 이런 그리스 철학은 아는데 제주 철학은 모른다. 우리는 오이디푸스의 오만처럼 신을 모

31) 김용희, 『삶의 길목에서 만난 신화』, 서해문집, 2013, 20~21쪽.

32) 김용희, 위의 책, 26~38쪽.

두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비참한 운명을 자처하기도 한다. 제주 철학은 그리스 철학처럼 우주의 시간관을 제시하여 놓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도 훈계한다. 그리스에서는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인생을 그렸지만, 제주에서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낙관적으로 그려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를 풀게 된다. 장상이와 매일이는 만나 부부가 되어 만년 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큰 뱀은 여의주 두 개를 포기하자 드디어 용이 되어 승천하고, 연꽃은 하나뿐인 꽃가지를 꺾어 주자 가지가지 꽃이 피어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물론 갖은 고난을 헤쳐 원천강에 도달하고도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와 주변을 챙겨 준 오늘이도 결국은 천상의 옥황 시녀로 들어가 세상 사람 돕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분절된 시간 속에서는 시련과 불행이 지속되지만 시간을 통합하여 보면 세속적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주 신화 속의 철학은 통합된 시간관을 제시한다. 여름에는 덥다고 꾸념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투정하는 순간적 불화를 버리라고 하고, 여름에는 여름이니 덥다고 지나고 겨울은 겨울이니 춥다고 지나는 순환적 시간관을 긍정하고, 더 나아가 통합적 시간관을 내장하고 있다. 시간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불행을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다.

오늘은 시간의 상징이다. 매일이와 장상이도 ‘하루하루’와 ‘기나긴 시간’의 상징이고, 그 둘은 순간과 영원이 한짝이 되었다. ‘오늘’이 개입하여 순간과 영원을 결합시켰다.³³⁾ 둘의 만남이 바로 ‘지금 여기’를 환기시킨다.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지금 여기에서 통합된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나는 미래 어느 순간 신호등이 바뀔 것을 알고 서 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나는 일주일 전에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파란불을 더욱 주시한다. 느린 발걸음 탓에 신호가 바뀌는 순간 출발하기 위해서다. 오늘의 ‘어제’는 어제의 ‘오늘’이

33)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74쪽.

며, 오늘은 내일의 어제다. 시간은 전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다.³⁴⁾ 지금 여기의 내게 과거와 미래가 하나다. 봄이 오면 꽃 피어 돌아올 식물의 부활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 꽃도 우리를 알아본다.

인사했더니

꽃이 말했다.

- 기다리고 있었어요!

- 내가 올 걸 어떻게 알고?

- 제가 꽃피어 올 것을 당신도 아셨지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철수, <꽃과 만나서>)

순환적 시간을 알면 시간을 통합하여 인식할 수 있다. 봄이 아름답지만 열매 맺고 가을이 와 그것이 수천 개의 생명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가을이 가고 긴 휴식의 시간을 거쳐 또 우리 곁에 봄이 와야 한다. 어느 순간 머무를 수 없다. <산천도량>에서 ‘새푸른 새각시’가 퇴치되고 ‘붉은 선비’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봄과 여름의 신록이 지나가야 산천에 붉은 단풍이 지는 계절이 오고, 열매를 맺고 결실의 시간을 획득하기 때문이 아닐까.³⁵⁾ 봄 속에 가을이 있고, 가을이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봄이 녹아 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오늘’에 대한 인식이다. 오늘 여기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이는 사계절이 하나인 세상을 만나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이제 자기가 살던 곳, 현실에서 오늘이는 사계절이 하나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오늘이의 각성은 길을 떠나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 속에 있다. 오늘이가 사계절이 하나

34) 카렌 암스트롱, 『축의 시대』, 500쪽.

35) 김현선, 『함경도 망목굿 산천도량 연구』, 2019, 141~170쪽. 최복녀 소장 <산천도량> 원문 참조.

인 세상을 만나고 온 것은 스프링크스의 신비를 만나고 온 것과 비견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이의 역정을 <연금술사>의 산티아고와 견준다. 피라미드를 향해 갔던 산티아고와 스프링크스의 사계절을 만나고 온 오늘이의 내력,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 보물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 산티아고와 오늘이를 함께 바라보고 싶다.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에게 새로운 각성이 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 이 세계와 자신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자는 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과 들리지 않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찮고 비천한 일상을 황금과 같은 것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³⁶⁾ 그래서 목표를 향해 긴 여정의 길을 떠났다 돌아온 자는 세상 모든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

우주 자연과 소통하게 된 오늘이를 더 알아 보자. 산티아고는 자연 속의 존재들과 들리지 않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데, 자연 속의 존재와 ‘들리는 말’을 주고받는 오늘이의 사연으로 가 보자.

2) 대등한 관계

신화를 보면 동물이 말을 하거나 인간이 자유롭게 동물과 결혼을 한다. 동아시아를 보면 자기 조상이 늑대라고 하면서 인간과 늑대의 결혼 뒤에 태어난 인물이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조상이 꿈인 경우도 있고, 그때 부족의 시조는 인간과 꿈의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이다. 그런데 우리의 단군신화는 꿈이 사람의 몸을 얻은 후 결혼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바뀐 문맥일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렇게 한 공간 속에 인간과 동물이 놓인 것을 의아해 한다.

36) 김용희, 앞의 책, 134쪽.

인간과 동물의 교호라는 사고와 똑같은 유형의 사고를 ‘시간’의 축에 투영한 것이 불교적 윤회관이다. 인간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난다든가, 전생에 동물이었다가 현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불교적 윤회관은 앞의 신화의 축을 자연스럽게 바꾼 전말이 있다. “불교는 신화적 사고가 공간축에서 전개되는 사상을 시간축에 투영해 전개하는 사상”³⁷⁾인 셈이다. <원천강 본풀이> 속의 인간과 동물은 현실계³⁸⁾의 동일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다. 그런데 초월계인 원천강에 사계절이 공존하고 있는데, 스피르크스의 몸을 빌려 말한다면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날개와 뱀의 꼬리를 한 존재가 공유하고 있는 형상이다. 잉카 부족들은 콘도르의 날개와 퓨마의 몸과 뱀의 꼬리를 한 신을 모시고 있다.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지 않고 한 몸인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시간이 공간으로 표출되고, 공간이 시간으로 표출되는 신화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상대적인 것처럼, 공간도 상대적인 것이다.

<산해경>의 축음(燭陰)은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원천강본풀이>의 천하대사(蜃) 모습이 연상된다고 했다.³⁹⁾ 축음은 눈을 뜨면 낮이고, 감으면 밤이 된다. 거세계 숨을 내뿜으면 겨울이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면 여름이라 한다. 이 축음의 모습 속에 사계절이 합친 모습이 떠오르니 동양의 스피르크스라 할 만하다. <원중기(元中記)>에서는 축룡을 설명하는데, 왼 눈은 태양인데 열면 낮이고, 오른 눈은 달인데 열면 밤이 된다. 입을 벌리고 있을 때는 봄과 여름이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가을과 겨울이란

37) 나카자와 신이치(김옥희 역), 『대칭성 인류학』, 동아사이아, 2005, 170쪽.

38) 이 논문을 쓰면서 천상계에 대응하는 세계를 인간계로 상정해 왔는데, 이곳에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못 생명이 두루 존재한다. 날짐승, 길짐승, 물짐승뿐 아니라 물고기와 나무와 풀도 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계 존재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인간 중심으로 ‘인간계’라 해서 안 되고 현실계로 고쳐 써야 할 것이다.

39) 권복순,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인물기능과 우주인식』, 『국제언어문학』 35집, 국제언어문학회, 2016, 97쪽.

다. 하나의 공간에 펼쳐지는 원천강의 사계절 풍경을 떠올린다. 이런 경우 봄과 가을이 순차적일 수 없고 시간과 계절의 구획이 무화된다. 다만 시간을 공간 감각으로 표출하였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사람의 얼굴과 뱀의 몸, 사람과 뱀이 하나의 공간 속에서 소통하고 있다.

오늘이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인간과 자연이 서로 말을 건네고 서로의 결핍을 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 현대 인간이야 삶의 중심에 그 잘난 인간을 두고 나머지 생명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 인간이 필요한 만큼만 자연에서 가져온다. 암컷과 새끼는 함부로 죽이지 않고, 알을 함부로 깨트리거나 먹지 않았다. 조기 한 마리가 2~3만 개의 알을 낳는데, 알이 딱 차 있을 때 먹어야 맛있다고 여겨 남획을 일삼다가 결국 조기는 우리의 밥상에서 사라졌다. 더 오만해지고 있는 우리의 식습관이 지구를 남김없이 파괴하고, 2050년에는 바닷속 물고기가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 유엔 녹색성장보고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고 있다. 역사의 종언, 이제 이것은 위협적 언사가 아니다. 이 독선적인 근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탈근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오래 된 과거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중세의 삶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자연을 배려하는 단계를 넘어, 자연이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과 자연의 구별이 무화된다. 인간이 동물에게 의존하고, 식물의 품에서 크다. 동물과 인간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말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서로의 부를 나누어 가지며 생활하던 사이였습니다.”⁴⁰⁾라고 하여 대등한 관계를 찾아 밝히고 있다. 동물이 자기 아내이거나 형제자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엮어서,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포획이나 파괴를 억제하는 제어장치를 만들었다. 그래서 고대신화 속에는 자연에 대한 배려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하고,

40) 나카자와 신이치, 앞의 책, 168~169쪽.

인간이 지녀야 할 윤리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형성시켰다.⁴¹⁾

대등한 관계는 얼마 후 동물이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깨지고 말았던 것 같다.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 보면 대별왕과 소별왕이 해가 둘 나타난 변괴를 해결한 후에, 이승과 저승 차지 내기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인간세계의 존재들을 구분한다. 그때는 인간과 귀신이 함께 동거하였는데 저울을 가져다 백 근이 차는 것은 인간으로, 백 근이 못 차는 것은 귀신으로 구획했다고 한다. 아울러 인간과 새와 나무도 함께 말을 했는데 송피 닷 말 닷 되를 뿌려 인간만 말을 하고 모든 동식물의 말을 빼앗았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세계의 질서를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문명(文明)의 세상이 구축되어 가고 있었고 인간과 만물이 함께 소통하던神明(神明)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⁴²⁾ <원천강본풀이>의 세상은 아직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神明 세상이다.

<원천강본풀이> 속 대등한 관계는 안과 밖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오늘이의 여정은 현실계에서 초월계로 향한다. 사계절이 있고 인간의 운명을 가늠해주는 공간인 것을 보면 인간세계와 구별되는 이계(異界)다. 오늘이의 부모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벼슬살이를 하는 것을 보면 선계(仙界)라 할 수도 있고 천상계라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이란 인간이 다다른 곳이어서 이쪽과 구분되는 저쪽이라 하자. 이쪽과 저쪽, 내부적 세계와 외부적 세계가 교호하고, 지상과 선계과 유대⁴³⁾를 맺어 상보성의 서사를 갖는다. 오늘이를 처음 보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나, 백씨부인도 그렇고, 매일리와 장상이도 함께 대등한 소통을 이루고 있다. 내외(內外)·인물(人物)의 대등한 관계가 이야기 속을 관통한다.

41) 나카자와 신이치, 앞의 책, 171쪽.

42) 근대는 너무 인간 중심주의였다. 인간의 유익함을 위해 자연이 너무 희생되었다. 이제 인간과 자연이 대등해지는 세상이 필요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인간과 짐승과 새와 나무가 함께 말하면서 소통했던 그런 세상이 다시 요구된다.(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232쪽.)

43) 고은임, 앞의 글, 210~212쪽.

조동일은 “人으로써 物을 보면 人이 貴하고 物이 賤하며, 物으로써 人을 보면 物이 貴하고 人이 賤하다. 하늘에서 보면 人과 物이 均하다.”(홍대용, 의산 문답)을 들면서 인물균론(人物均論)을 말하고 있다. 여래의 눈으로 보면 살아 가는 우리 처지가 모두 같다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상은 세상 만물의 차별을 벗어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인간세계의 차별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화이(華夷)·내외(內外)가 같다는 내외균론(內外均論)을 덧붙여 대등한 화합을 말하고 있다.⁴⁴⁾ 그런데 <원천강본풀이>의 ‘원천강’이 바로 인물균론(人物均論)과 내외균론(內外均論)이 모두 실현된 공간이다. 사람과 사람의 대등한 관계는 사람과 다른 생물의 대등한 관계를 근거로 함을 알 수 있다. 탈근대 패러다임이 저 먼 과거 이야기 속에 내장되어 있다. 오래된 미래다.

4. 결

오늘이 만난 원천강의 사계절은 시간의 구분이 없는 곳이고, 모든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큰 시간의 틀로 보면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전생과 현생이 공존하는 것이다. 하나의 공간에 과거-현재-미래가 있다는 사고로 본다면, 삶과 죽음도 하나의 공간 속에 있다는 셈이다. 과거 고대인들의 공간관이 그러한데, 하나의 공간 속에 삶과 죽음이 있다는 사유다. 죽음은 한 공간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변화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그러니 죽음은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막혀 이쪽에 인구가 과밀하여지고 온갖 오물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문을 툇터니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동하여 평화가 찾아왔다는 신화도 있다. 과거 삶과 죽

44) 조동일, 『대등한 화합』, 지식산업사, 2020, 20~21쪽.

음을 대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아마 사계절이 구분되지 않는 원천강과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원천강을 찾아가는 오늘이의 여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누구에겐가 묻고 또 다음 단계를 위해 누군가를 만나 묻는 연속이다. 우리 인생도 것처럼 단박에 찾아가는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닿는 직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계를 수없이 거쳐야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으니, 멈춰서지 말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

솔한 존재들에게 신세를 지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이제 할 일은 거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보답하는 길이 남았다. 베풀고 보답하는 삶이 거기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운명적인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원하는 세상으로 가도록 돕기도 하고 원하는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삶이 거기 있었다. 그런데 제약된 운명을 바꾸는 데는 깨트려야 할 장벽이 있었으니, 협소한 자기 안위의 테두리를 깨거나 과도한 욕망을 버리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결혼해 행복해질 선택이 요구된다. 과도한 욕망은 자신을 망가트리는 독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욕망을 좇다가 패망하는 삶을 수없이 확인하지 않던가. 이기에 빠지지 말고 이타적 삶을 사는 것, 사랑과 공감과 자비라는 덕목은 ‘축의 시대’ 성인들이 남긴 소중한 말씀이고, 자본주의의에 의해 피폐해진 인간을 구원할 방식도 거기에 있다. 제주 서사무가는 축의 시대가 구축한 ‘공감과 자비’의 정신을 터득하고 있다.

원천강을 가고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오늘이의 여정은 묘하게도 부모에 의존하기의 전반부와 부모에서 벗어나기의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이는 긴 여정을 만나면서 성숙하게 되고 성년의 판단력과 깨달음이 있을 즈음,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삶을 향해 길을 떠난다. 우리 젊은이의 여정도 이처럼 어린 시절 부모에 의존해 성장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나 훌

로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자기정체성을 찾고 인간답게 살게 될 것이다.

오늘이의 여정에서 함께 한 존재들은 인간과 동식물과 선계 선녀들인데,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존재를 망라하고 있고, 이 존재들이 서로 말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누군가가 위압적이지도 않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도 않다. 인간과 동식물이 대등하고, 인간세계 안쪽과 바깥쪽이 대등하게 교류하고 서로를 돕고 있다. 우리 현대문명은 지나치게 인간 위주로 흐르면서 자연의 생명들을 홀대하고 함부로 죽이고 파괴했다. 먹히는 것들에 대한 예의조차 갖지 못한 문명 속에서 인간만의 욕망만 부풀렸다. 숲이 파괴되어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 100년 전의 6%에 불과해지자, 바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간 숙주를 택해 도시로 나왔다. 그것이 작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생명체를 배려해야 하고, 그런 정신을 오래 된 신화로부터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 참고문헌

- 강경호, 「‘오노리’ 노래의 무가적 전통과 「심방곡」과의 관련 양상」, 『영주어문』 제17집, 2009, 5~35쪽.(UCI: G704-SER000010594.2009.17..007)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1.
- _____,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민속학연구』 12집, 국립민속박물관, 2003, 7~36쪽.
- 고은영, 「제주도 특수신본풀이의 성격과 의미」, 제주대 박사논문, 2019.
- 고은임, 「원천강본풀이 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35집, 서울대 국문학과, 2010, 201~220쪽.
- 권복순,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배달말』 제56집, 배달말연구회, 2015, 167~194쪽.(UCI: G704-000768.2015..56.007)
- _____,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인물기능과 우주인식」, 『국제언어문학』 제35집, 국제언어문학회, 2016, 375~402쪽.(UCI: G704-SER000001636.2016..35.016)
- 김용희, 『삶의 길목에서 만난 신화』, 서해문집, 2013.
- 김현선, 『한국무조신화연구』, 민속원, 2015.
- _____, 『함경도 망목굿 산천도량 연구』, 2019.
-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251~277쪽.(UCI: G704-001496.2010..20.011)
- 나카자와 신이치(김옥희 역), 『대칭성 인류학』, 동아시아, 2005.
- 박명숙, 「한중 구복여행 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371~407쪽.(UCI: G704-000283.2006..22.009)
- 송정희, 「제주도 굿 재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2015.
-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 _____, 「서사무가 속의 울음에 깃든 공감과 치유의 미학」, 『한국무속학』 제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31~64쪽.(UCI: G704-001496.2016..32.003)

- 아침나무, 『세계의 신화』, 삼양미디어, 2009.
- 유정월,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4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45~271쪽.(DOI: 10.20516/classic.2018.42.245)
- 아키바·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상』, 대판옥호서점, 1938.
- 조동일, 『대등한 화합』, 지식산업사, 2020.
- 조현설, 『신화의 언어』, 한겨레출판, 2020.
-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제23집, 남도민속학회, 2011, 409~436쪽.(UCI: G704-002035.2011..23.014)
- 정제호, 「<원천강본풀이>의 문화콘텐츠화 요인 분석」, 『동양고전연구』 제77집, 동양고전연구회, 2019, 119~144쪽.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 카렌 암스트롱, 『축의 시대』, 교양인, 2010.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1997.
-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 Abstract

**The temporal and spatial meaning and system of thought
in Weoncheongang Bonpuri**

Heo, Nam-Choon

This paper is about finding the meaning contained in the main character's journey. I would like to find the Oral Philosophy in Jeju Island's shamanistic myth.

In the main character's journey, I discovered that there was no direct flight to the final destination of life. I found that life's goals can only be achieved after many stages. The main character's journey back from his destination is a process of rewarding those who helped him. This is the spirit of "punishment and reward." This is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Axial Age' - mercy and empathy. In addition, if the first half was a process of "depending on parents," the second half is a process of "getting out of parents." The main character shows the journey of finding his own identity alone.

All beings with deficiency solve the problem. There is a lesson in this myth that you can get what you want if you give up your material desires or obsessive minds. They also say that you shouldn't just study, and that humans have the right to be happy in marriage. We pass through such easy problems, but it teaches us the wisdom that life changes when we remind each other. Our fate leaves open the possibility that if half is set, the other half can be changed.

Finally, humans and animals and plants communicate and show each other

a helpful relationship, the human world and the transcendent world communicate and solve problems. Man and nature are equal, and the world inside and outside are equal. In mythology, I find the answer to save mankind, who have reached its limit by destroying nature.

Keyword ● WeoncheonGang, Onuli (today), Myth, Destiny, Giving and rewarding, Mercy and empathy, Standing alone, Four seasons, Time perspective, Sphinx, Control of desire, Equal harmony

┃ 논문투고일 : 2021. 3. 15 ┃ 심사완료일 : 2021. 4. 12 ┃ 게재확정일 : 2021. 4. 12

